

## [보도자료] '하이드' 180도 달라진 일상! 시작부터 충격 엔딩으로 과몰입 유발 1, 2화 공개!

2024. 3. 25.

지난 토, 일 저녁 10시 첫 공개한 쿠팡플레이 시리즈 <하이드>가 시작부터 강렬한 충격과 미스터리한 엔딩으로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쿠팡플레이 시리즈 <하이드>(감독: 김동휘 | 주연: 이보영, 이무생, 이청아, 이민재)는 어느 날 남편이 사라진 후, 그의 실종에 얽힌 비밀을 추적하며 감당하기 어려운 큰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여자의 이야기.

첫 주 공개된 1, 2화는 다정한 '성재'(이무생)와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문영'(이보영)이 출근했던 남편의 실종 소식을 들으며 이야기가 시작된다. '문영'은 사라진 '성재'를 대신해 맡게 된 재판에서 '진우(이민재)'를 비롯한 어딘가 수상한 사람들을 만나고, 계속해서 연락 두절인 '성재'까지 정신없는 하루를 맞이한다.

다음날, 엉망이 된 사무실을 발견한 '문영'은 결국 경찰에 '성재'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다. 사라진 '성재'를 쫓으며 사사건건 부딪치는 '진우'에 대한 의심이 계속해서 커져가던 중 들려온 '성재'의 사고 소식. 이어 사고 현장을 발견한 '문영'의 절망적인 모습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후 의문스러운 점을 남긴 채 '성재'의 장례를 치른 '문영'은 피고인 '김윤선'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재판이 종결되자 점점 미궁 속

으로 빠지는 사건의 진실을 찾아 나선다. 처음 찾아간 '마강'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며 몰랐던 '성재'의 비밀들에 하나씩 다가가는 '문영'의 모습은 긴장감을 더했다.

'문영'은 죽은 남편이 보낸 편지를 통해 신발장 속 구두 상자를 확인하고 충격의 눈물을 흘린다. '성재'의 죽음을 제대로 파헤치기 위해 '진우'를 만나러 가던 '문영'은 한밤중 들려온 총성에 놀라며 보는 이들의 심장도 함께 떨리게 했다.

한편, 약속 장소로 가는 '진우'는 그의 뒤를 쫓는 차로 인해 오토바이에서 떨어지고, '진우'를 향해 겨냥된 총구와 함께 충격적인 엔딩을 장식해 앞으로 벌어질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시작부터 빠른 전개와 충격적인 엔딩을 함께 선사하며 다음 회차를 기다리게 하는 <하이드>는 매주 토, 일요일 저녁 10시 쿠팡플레이에서 공개되며, 쿠팡플레이 공개 후 10시 30분에 JTBC에서 방송된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mailto:media@coupang.com)